



◇자원봉사자들이 수련회 참가자들의 접수를 받고 있다.

◇발우농민 자리위에 수련생들의 이름을 붙이고 있다.



◇수련복을 치수에 맞게 정리하면서 내 마음도 다 시원해 가다듬어 본다.

## 초발심 되새기며 수련참가자 손·발 노릇

### 해인사 수련회 자원봉사자들의 '하루'

제19회 해인사 사찰수련회 일제 전날인 24일 새벽 3시, 김중도화 보살(34)은 여는 때처럼 조용히 일어났다. 세수를 간단히 하고 옷매무새를 기다듬은 뒤, 아침예불에 참석하기 위해 대적광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김보살이 이곳 해인사에 인연을 맺은 지도 어언 9년. 텔레비전에서 성철 스님의 열반 관련 보도를 보고 해인사를 찾은 김보살은 매년 2~3개월 자원봉사를 한다. 94년 사찰수련회 참석을 계기로 시작한 자원봉사는 김보살 일년 계획의 소중한 부분이다.

김보살이 이렇게 해인사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생업과 관련이 있다. 어릴 때부터 해운 종합양식장이 여름철에는 비수기라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저녁엔 흥분이 부쳐짐으로 보인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만 생명이 부처가 깃들어있는 것 아닐까? 일상사에 휘둘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원봉사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김보살은 새벽 예불과 아침 공양을 마치고 보경당에서 수련회 참가자들을 위해 수련복 정리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한다. 수련회 습의사 스님의 지도 아래 급비라 보살, 미진수 보살과 함께 수련복을 치수대로 분류하고, 보기 좋게 개어 놓으며, 자신이 처음으로 참석했던 수련회 때의 초발심을 되새겨본다.

다음은 발랑발우 씨는 천) 만드는 일. 보월화 보살이 재봉질로 발랑을 만들어주면 그것을 다시 뒤집고 가리끼를 접어서 한 자리에 모은다. 이 과정에서 보풀이 일어나와 주위를 어지럽히면 자신의 탓인 양 재계 손을 돌려 치운다.

정심 공양을 하고 나선 보경당에서 수련회 안내책자에 속지 넣는 일을 한다. 미진수 보살과 함께 책자에 수련회 일정표와 발우공양작법, 서약서 등을 넣으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 종교를 안 가진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하길 기원해본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수련회 강당과 거사들의 잠자리가 될 보경당과 보살들의 잠자리가 될 지장전 내부 꾸미기를 한다. 벽면에는 수련회 일정표와 안내 사항, 주의 사항 등을 붙인다. 기동 하나 하나에 목인·차수·화장금지 등을 붙인다.

밖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며 온갖 물질의 풍요 속에 지내왔던 그들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바로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을 때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나 자신부터 거기에 이끌려 살아가는 않았는지 반성도 삼삼 해본다.

25일, 아침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먼저 수련회 참가자 이름표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자원봉사자가 부족한 관계로 모든 이들이 여기에 붙어 일을 한다. 100여명 참가자들을 조별로 나누고, 불참을 통보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정성껏 이름표 하나하나에 글씨를 쓴다.

오후 1시, 드디어 참가자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고 개인물품을 맡긴 다음 수련복으로 갈아입는다. 이들은 처음에는 다소 어수선하게 돌아다니다가도 수련복을 입으면 이내 편안함이 된다. 법당에 목인·차수 등이 붙어 있는 것도 여기에 한 역할을 하지만 수련복 자체가 주는 의미 또



◇수련복 잘 하라고 공양을 준비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정성스럽다.

### 수련복 정리·공양간 일등 눈코뜰새 없어 "자아성찰 도움됐으면" 일심으로 뒷바라지

한 노력치 않기 때문이다.

수련회 참가자들과 함께 세 명의 자원봉사자도 착했다. 거사 2명과 보살 1명. 일손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고 온 최마장 보살(52)은 94년 수련회에 참가한 뒤 수련 동문회에도 적을 둔 열성파다. 최고령 자원봉사자인 최보살은 시누이와 시동생이 스님인



◇"들어진 곳은 없나" 한 봉사자가 수련복을 꿰매고 있다.

그어발로 볼자 집안인 걸 영광으로 생각한다.

최보살이 본격적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은 건 32세 때. 집안 문제와 산후 조리 부실로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신경성 위궤양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으나 시어머니에게 간병을 부탁하는 것이 부담이 돼 자 일피일 미루다 관음기도를 하고 나선 병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제가 불교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불자로서 늘 모범을 보이면 저를 보고서라도 절에 한 번 와 볼 것 아닙니까?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열심히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수련회 참가자들이 보고 자신도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수련생들이 법당에 들어가 공식적인 일과를 시작하자 최보살은 현공 거사와 모음성 보살 등과 함께 컵을 씻고 식수를 퍼 준다. 다소 긴장된 분위기에 수련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감로수 한 컵도 제법 유용할 것이다. 또 도시의 수돗물이 아닌 기아산 해인사의 물맛도 그들에게 산사 찾는 또 다른 맛으로 작용해 불자들이 더욱 늘어나기를 발원해 본다.

최보살은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보경당 한쪽 모여 앉아 수련생들을 위한 물품 점검도 한다. 모기약부터 시작해서 설사약, 변비약, 밴드, 파스, 우황청심환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점검한다. 몸이 아프면 수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련생들의 저녁 발우공양이 끝나고는 천수차관을 비롯해 승냥차

관, 국통, 찬상, 공양통, 회수통 등을 공양간으로 옮긴다. 힘에 부치는 일이지만 내 집안일보다 정성껏 한다.

잠시 후, 최보살을 비롯한 모든 봉사자들이 공양간으로 이동한다. 뒷정리를 위한 것이다. 기본적인 것은 행자들이 하지만 봉사자들은 그어발로 뒷정리를 한다. 바닥을 쓸고 닦으며 최보살은 자신의 마음의 때 끼지도 함께 닦는다. 불자로서 잘 했는지, 잘 행하고 있는지 반추하며 새로운 결의를 다지기도 한다.

9시 취침 시간. 최보살은 몸을 고단하지만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채 잠자리에 든다.

합천=남동우 기자 dwnam@buddhapa.com  
사진=고영배 기자 ygo@buddhapa.com

### 다수가 사찰수련 경험자

"좋은체험 했으니 남 돕겠다" 모임결성 조직적인 봉사도

자원봉사자들 다수는 사찰수련회 경험자들이다. '좋은 체험이 됐으니 다른 사람의 수련을 돕겠다'는 생각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다.

수련회 참가자들이 모임을 결성해 조직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순천 송광사의 경우 수련회 참가자들이 '송사모(송광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 문수지 보살)'라는 모임을 만들어 수련회 1-2주 전 서로 연락을 하는 등 수련회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준다.

수련회 봉사는 성인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남 미항사의 경우 매년 여름 어린이 한문학당을 개설하는데 이에는 어엿한 중학생이 된 한문학당 선배들이 자원봉사를 한다.

미항사 주지 금강 스님은 "자원봉사 희망자들을 다 수용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한다.



◇이물정리를 하는 자원봉사자들



◇다소 힘에 부칠 지라도 봉사자 또 하나의 수련이기에 안내한다.

## "스님·불자님" 부다피아 외환카드 만들어 드립니다.

### 부다피아카드만의 특전

- 동국대의료원 산하 5개 암·한방 병원 진료비 5~20%감면
-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 할인
- 불교전문서점 "마하불" 할인
- 전국 유명호텔, 콘도 최고 88%할인
- 유명영화 및 할인점 무이자 할부 2~3개월
- 외식업체 할인서비스(까르네스테이션 등)
- 국내외 항공권 3% 할인
- 현대정유 오일뱅크 리터당 30원 적립
- 불불구매 누적금액에 따라 1,000원당 3원에서 10원 적립

부다피아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시금이 적립됩니다. 스님, 종무원, 불자 누구나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외환카드 회원도 추가, 교체가 가능합니다.

가문의

현대불교신문사 불교 카드 사업단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직통)02-725-1132 대표)02-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외환카드